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5주일
제34권 33호(가해) 2014-7-13

[묵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心田

씨는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예수님.
땅은 바로 나 자신,
밭은 바로 나의 마음.

그러면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가?
내 마음 밭에는 길바닥과 자갈밭이 있고,
가시덤불도 자라고 있으며 또 좋은 땅도 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라죽거나
또는 다른 욕망들 틈에서, 갈등[葛藤](쑥갈, 등나무등)속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쪽정리로 남기도 한다.

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마음 갈이가 필요하다.
내 마음을 밭갈이하지 않으면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박혀 있는 이기심과 교만, 불신과 배척의 돌을,
돈, 명예, 소유에 대한 욕심의 갈등 가시덤불을 갈아엎고,
내게 뿌려진 하느님의 말씀에서 수많은 결실을 얻고 싶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박정은 앤젤라, 임길도, 고광민
주 일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혜옥 안나, 박무성, 주영석 페드로, 송근섭 발렌티노, 전시웅 요한, 송학래, 김종환 야고보, 김옥순 소피아, 임현기 마르코, 주용범 아브라함
낮미사	(생)김기준 안젤라, 진은란 아네스, 오수지 & 토니 가정,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김호인 벨라멧다 & 주용순 모니카 & 손영희 수산나, 이형삼 요셉,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홍석인 체칠리아, 박현희 & 박진경 & 박인호 요한 & 박인혜 클라라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5,10-11

화답송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하느님은 이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한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18-2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13,1-23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195	241
봉헌	361	255	265
성체	고백	305	304
파견	기뻐하며 왕께	241	191

성령과 예언

올바른 성령 이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요엘 3,1).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사도 2,1-2). 이렇게 교회의 시작에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도록 교회를 재촉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일치시키고 살아 있게 하시며,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각 지체들에게 풍성히 내려 주고 계신다. 또한 교회가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때와 장소에 따라 끊임 없이 쉼의 은혜를 내려 주시며, 믿는 이들의 신앙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 생명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며 완성시켜 주시는 성령께 오랫동안 불충하게 살아온 일도 없지 않다.

인간의 나약함과 나태함에도, 성령께서는 신도들과 교회가 시들지 않고 늘 새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은 성인 성녀들을 보내시고, 훌륭한 수도회들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며 전수하게 해 주셨다. 산업화로 위기를 겪던 19세기에는 많은 선교 봉사 수도 공동체를 주셨다. 또한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 온 세계가 경제 공황과 큰 혼란과 고통을 당할 때, 성령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의 벗이 되는 영웅적 복음의 증기자들을 보내 주셨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초대 교회처럼 친교와 나눔과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 운동과 청년운동 등이 생겨나게 하셨다.

은혜롭게도 성령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교회가 쇠신되고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성경 운동과 소공동체 운동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개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할 때 새로운 오순절(五旬節)을 표방하는 ‘오순절 운동’(Pentecostal movement)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이 20세기 후반에 가톨릭 교회에도 많이 보급되고 확산되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은사가 교회의 지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에 비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사도 시대에도 이 특별한 은혜가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 때문에 공동체에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1코린 1,10-13; 3,5-23; 필라 1,15-21 참조)

그리하여 사도들은 교회 신비체의 원리로 성령의 은사를 식별하고 질서를 잡아 주며, 각자가 자제하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통제하여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권고하였다.(1코린 12-14장; 에페 4,1-16; 1테살 5,12-24; 2베도 2장 참조) <◆계속>

매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사람

어즘 어금니가 불편해져 한 신부님의 소개로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의 성서연수생이었다는 옛된 얼굴의 의사선생님은, 항상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느 날은 잇몸에 마취주사를 받고 진료의자에 누워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 치아를 발치하는데 조금 위험한 수술이라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 네~” 나는 비스듬히 누워 그 선생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바로 중중걸음으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작은 행동은 참 신선했고 오랫동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느님 말씀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의 이 대목을 대했을 때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농부가 무작정 씨앗을 들밭이나 길바닥, 가시덤불 속에 뿌린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당시의 팔레스티나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와 전혀 달랐습니다. 팔레스티나의 땅은 대체로 바위가 많고, 더운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메마르고 굳은 들밭에 먼저 씨앗을 뿌리고, 비가 오면 그때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들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을 쉽게 포기할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신

앙보다 돈과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같지만 듣는 이의 마음자세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은 당연히 백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어디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씨를 뿌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잣대가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 혹은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한마디의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바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실천할 것을 생각하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 동시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또한 내가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허영엽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마음조차 낮아지다.

이른 봄, 후미진 곳에 할미꽃 피었습니다.
허리 숙여 바라보았습니다. 제비꽃 피었습니다.
무릎 굽혀 바라보았습니다. 애기똥풀 노랗게 피었습니다.
고개 깊이 숙여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몸을 낮추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자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특강 및 환영 BBQ 파티

백삼위 본당 전임신부님이셨고 현재 부산교구 물운대 성당주임이신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셔서 특강중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1강(이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이어 오늘주일(13일) 오후 1시부터 제2강을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되십시오.

- 제2강 주제 : 성숙한 신앙인의 사명

☞ 박상대 신부님 환영 BBQ 파티 : 특강후 오후 5시 친교장, 본당 신부님께서 제공해주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만남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방선교회 감사미사 봉헌 및 후원회원의 밤

- 감사미사 : 7월19일(토) 특전미사, 20일(주일) 아침/낮미사
- 미사집전 : 한국의방선교회 김용재 안드레아 총장신부님
- 후원의 밤 : 7월20일(주일) 오후 5시 친교장
- 문의 : 백삼위본당 후원회장 이상철 크리스토퍼 ☎(310)818-6903

◆ 요셉회 7월 모임

- 일시: 7월 20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강당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 780-2789

◆ 여름방학중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 기간 : 8월23일까지(8주간) 매토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1층 회의실 또는 교실
- 강사 : 유선영 클라라(준비물관계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 문의 : 자모회장 한길선레 스폴라스티카 ☎(310)782-1025

◆ 본당 홈페이지(<http://www.103skcc.org/>)에 서식/양식 게시판 올림

- 신자분들의 많은 방문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직접 사무실

에 오지 않으셔도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광장" 에서 서식/양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문의 : 103skcc@gmail.com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신청 7월 20일 마감

- '교황님과 함께하는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과 한국성지순례' 프로그램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백삼위 탁구 동호회 회원모집

- 대상 : 본당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1시
- 장소 : 강당 및 유아실 * 회비 : \$ 60 / 연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동호회회장 ☎(310)971-7043

◆ 2014년 제27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요한 1, 38-39)
- 일시 : 8월2일(토), 8월3일(주일),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 강사 : 반영익 라파엘 신부(청주교구 감곡대교성모순례자성당),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텍사스 엘파소 성김대건한인성당),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소장)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차편이 필요하신분은 본당 성령기도회장(강혜원 아네스 ☎ 310-780-0369)에게 7월 20까지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당일 도시락과 음료수는 본인이 준비하기 바랍니다.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변경 - 7월1일부터 -

- 월요일 : 휴무
- 화,수,목,금,토 : 오전 9시30분~오전 11시30분, (점심시간 : 오전11시30분~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7시
- 주일 : 오전 8시~오후 4시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13일(주일) : 토런스 동2반(소고기무국 \$3)
- 7월 20 일(주일):토런스 서2반(웰빙 우거지국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김 옥	김기정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영정	김옥보	김일선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주량	김창규	노혜숙	민기남	박씨니	박완철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박종민	박진수	방정복
	배재일	석순영	송기철	오수인	오일순	우영희
	원건희	유선식	이경수	이귀분	이근모	이남현
	이민상	이윤무	이은록	이인두	이형삼	정정현
	정지숙	조소영	조화숙	주대중	주용순	차인수
	최기남	최영신	최재은	한장환	홍광선	황철수
	영희가보라	송마이클		합계 : \$5,320		
주일미사 헌금 : \$2,327	2차헌금 : \$ 883					

성전헌금	강숙경	김 옥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정희
	김주량	노혜숙	민기남	박씨니	박완철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석순영	오수인	원건희
	유선식	이경수	이귀분	이근모	이남현	이민상
	이윤무	이은록	이형삼	정정현	정지숙	조화숙
	주대중	주용순	차인수	최기남	최영신	최재은
	한장환	홍광선	영희가보라	송마이클		
	합계 : \$2,620					

공지사항

◆ 본당 배론 청년회 신입회원 모집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즐겁고 보람찬 성당활동을 같이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사전례와 본당 행사에 참여하여 의미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대학생부터 누구나 다...
- 문의 : 이범주 다니엘 (310)988-8785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백삼위한국학교 교사 모집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중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주관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등은 들른 냉난방 기기를 반드시 꺼주세요. 각 방의 창문을 사용한 후에는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 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의 관심있는 손길을 타야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현관문+바깥Gate)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배태임 안나 781-9199 7/12(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이근태 세르지오 999-5226 7/19(토) 12:30p 토런스콕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7/11(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7/12(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명렬 라파엘 749-0276 7/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7/13(주일) 오후 1시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최옥희 데레사 508-2912	최옥희 데레사 7/19(토) 오후 7시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정아 리더아 850-2822 7/13(주일) 오후 5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병옥 올리아 404-1607 7/20(주일) 오전9시 텔튼 콕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테르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7/12(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7/12(토) 오전 11시 팍 야유회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7/11(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7/12(토) 오전 10시 샌버나디노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안네스 617-3568 7/19(토) 오전 라이언 콕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 성당 제24기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7월13일, 20일(주일)
- 수강료 : \$200, *교육방법 : 첫날 강의후 10회 실습
- 문의 : (323) 731-4433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시 : 7월19일(셋째토요일) 미사 : 오전 11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 *문의 : ☎(213)820-6535 김윤희수녀

◆ 특강 :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일시 : 7월27일(주일) 오후 1시~4시
- 강사 : 이인국 바오로(서강대교수, 생명윤리학박사)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주관 : KCLC(미서부지역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양 요안나 ☎(909)518-4376
- 장소 : Prince of Peace Abby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양요안나 (909)5184376

있어야 할 자리

지난 가을 하늘공원에 부임하고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겨우내 메마르고 얼어있던 이곳에 봄이 오고 파릇파릇 돋는 싹을 보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봄을 맞이하며 묘지를 둘러싸고 만개한 벚꽃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늘공원이구나!” 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묘지 위로 쑥쑥 솟아나는 잡초는 저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늘공원에서는 그동안 받지 않던 매장료 관리비를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가족들의 요구는 분명해졌고 그것은 바로 별초였습니다. “이게 뭐니까? 관리비까지 받으면서 왜 우리묘는 별초하지 않았어요?” 불만에 찬 항의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별초해야 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풀과의 전쟁이다.”

5월부터 4명의 직원들과 함께 5만평의 묘지를 누비며 풀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초기의 무게와 진동으로 손이 떨려 손가락조차도 돌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손에 굳은살이 박이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가면서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땀보다는 자연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부쩍부쩍 자라는 잡초를 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들의 적(?)인 잡초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잡초에서 편 이 꽃들이 묘지가 아니라 산이나 들에서 피었다더라면, 사람들이 와!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좋아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베어지는 잡초의 꽃들은 산과 들판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들꽃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이나 좋은 땅이나 똑같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우리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신의 온갖 정성을 쏟아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을 주셨으며 소중히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묘지에 피어있다면 베어 버려야 할 잡초꽃이듯, 우리들은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모든 이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 더 나아가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찬미드릴 수 있을 때, 좋은 땅이며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 비록 자신의 처지가 힘들다 하더라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파이팅

◆서장진 스테파노 신부 / 부산교구

미사예물을 바친 사람의
지향만을 위해 미사가
봉헌되나요?

전례 상식

☞ 교우들 중에는 미사 예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미사를 어느 특정인을 위한 미사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 예물은 교우들이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시는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히 결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더욱 풍성히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징적 표시입니다.

교우들이 바치는 미사 예물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생활과 사목 활동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자선금으로 쓰여집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같은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비신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먹칠을 하는 사람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 모든 단어들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과라는 단어에는 사과만의 모양과 색깔, 맛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니 정의니 하는 어려운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과와 같은 단어는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혼란이 없지만, 사랑이나 정의 같은 말들은 복잡한 까닭에 여러 가지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쉽게 답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단어 가운데 으뜸이 ‘하느님’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넣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어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이름만 하느님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계명이 왜 십계명의 첫 자리에 있는지 여기서 그 이유가 밝혀 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우상들이 ‘우상’이 아닌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은 우상이지만 이름만은 ‘하느님’으로 치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상하게 하는 그 교우분 역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하느님’이란 이름으로 치장하여 살고 있을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진짜일 때 빛이 나지만, 가짜일 때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